

	보도자료	2026. 5. 15.(금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원예작물과장	강상훈	☎ 760-7450
		업무담당자	김승남	☎ 760-7472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사료작물 ‘트리티케일’ …제주 축산 사료 대안 가능성 확인

- 현장평가 만족도 86점…축산농가 조사료로서의 가치 확인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새로운 사료작물인 ‘트리티케일’이 수입산 호밀을 대체할 조사료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.
- 트리티케일은 밀과 호밀을 교잡한 작물로, 가축 기호성과 영양성이 우수한 밀의 장점과 추위 및 쓰러짐에 강한 호밀의 장점을 동시에 갖춘 사료작물이다.
- 최근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로 수입산 호밀과 달리 자가채종이 가능하고 종자 가격도 저렴해 국내산 조사료 확대를 위한 대체 작물로 주목받고 있다.
 - * 재배면적(전국, ha): ‘19) 180 → ‘25) 1,600
 - * 종자 가격(원/20kg): 트리티케일 40,000, 호밀(수입산) 55,000
- 농업기술원은 제주지역에서 트리티케일 재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.0ha 규모로 시작한 실증사업을 올해 7.4ha까지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.
- 트리티케일의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일 표선면 가시리에서 국립식량과학원, 서귀포시축산협동조합과 공동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, 축산농가 등 48명이 참석했다.
- 현장에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는 86점으로 나타났으며, ▲공급 확대 필요성(90점) ▲실증 지속 추진 필요성(90점) ▲수량성(86점)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.
 - * 조사내용: 사료 적합도, 생육, 수량성, 만족도, 재배의향, 공급 확대 필요성, 실증시험 지속성



- 현장평가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은 트리티케일이 제주지역 사료작물로 적합성이 높고 생육 안정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했으며, 재배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.
- 또한 트리티케일과 이탈리아라이그라스(IRG) 혼파 재배 비율 설정과 한우 사료 급여 시 기호성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.
- 이에 농업기술원은 제주지역에 적합한 혼파재배 기술을 검토하고, 축산농가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료 급여 기호성 검증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- 아울러 2027년부터는 도내 축산업협동조합과 공동 실증을 확대해 트리티케일의 사료작물 적합성을 검토하고, 단계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.
- 이정배 식량작물연구팀장은 “트리티케일은 제주지역 기후환경에 적합하고 생산성과 사료 가치가 높은 작물”이라며 “이번 실증시험을 계기로 도내 트리티케일 현장 보급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